

## ■ 학교탐방 - 대연정보고등학교

# “제2의 스티브잡스 꿈 영근다”



모바일콘텐츠 특성화고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대연정보고 학생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

## 부산 최초 모바일콘텐츠 특성화고 명성 우수한 교사진 최첨단 실습기자재 갖춰

대연동 황령산 골짜락, 교문을 들어서면 반가이 뜰어 안을 듯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교사배치(校舍配置)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가을 햇살에 옥색이 어둡 듯 학생들의 꿈이 영글어 가고 있는 교정은 산을 이웃하고 있어 조용하기 그지없는 교육명당이다.

이곳이 부산 최초 모바일콘텐츠

특성화고등학교 대연정보고등학교(교장 문 병준)다.

대연정보고등학교(이하 대연정보고)는 1973년 학교법인 인목재학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1976년 3월, 개교했다. 임진왜란 당시 인목재 박천후 공(公)은 동래부사 송상현과 합세하여 왜적에 항거한 공로로 조정으로부터 선무원종공

신의 녹권을 받았다. 대연 정보고는 공(公)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후손(죽산박씨)들이 설립한 교육도량이다.

올해까지 35회 23,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대연 정보고는 성실, 협동, 창의를 교훈삼고 따뜻한 품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현재 37개 학급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제2의 스티브잡스를 꿈꾸며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2008년 3월 정부부처 IT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학교로 선정된 데 이어 2011년 8월 교육감으로부터 모바일콘텐츠분야 특성화고로 지정되면서 관광경영·모바일디자인·모바일게임·모바일콘텐츠과로 개편, 21세기 첨단산업사회를 선도할 인재양성의 가치를 높이 올렸다.

우선 관광경영과는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 맞는 문화관광 콘텐츠 제작 능력과 관광실무능력을 겸비

한 문화관광 서비스 기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모바일디자인과는 창의성과 기획력을 겸비한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와 그래픽 디자이너를 양성한다. 모바일게임과는 모바일 인터넷환경변화에 따른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에 맞는 게임 기획 및 모바일 게임 프로그래머와 기획자 양성에 주력한다. 모바일콘텐츠과는 모바일환경에서의 업무처리 및 콘텐츠제작을 위한 기초전문 인력 양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이들 4개과는 철저한 현장중심의 실무형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선취업 후진학을 사회진출 전략으로 삼고 대연정보고만의 특색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중심의 산학연계교육과정 맞춤형 운영이 그것. 직업 기초 소양교육, 직장적응 교육, 산업체 현장교육 등을 통해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교육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인성 및 자존감 프로그램은 운영, 언어문화 개선, 효, 예절교육, 다도실습, 리더십 교육 등과 성공한 직업인 및 기술명인을 초청하여 특강을 듣는 시간도 마련한다. 또한 전교직원이 모바일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최첨단 실습기자재로 수업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이런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해 부산은행, 농협, 근로복지공단 등 유수의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취업 후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재직자 전형 등으로 대학진학의 꿈도 이룰 수 있다. 이처럼 취업과 진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거머쥐는 행운은 학생의 노력과 학생 개개인의 꿈과 능력을 키우고 가꾸는 데 전력 지도한 교사들의 열정의 결과다.

대연 정보고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산학연계 교육과정과 인성 및 자존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사고와 목표의식을 심어주고 미래 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모바일콘텐츠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육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두래 기자

## 취업 명문사학으로 키우겠다

### 문병준 교장

지난 3월 취임한 문병준 교장은 지식만을 강조하는 반쪽 교육은 지양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인성을 겸비한 전인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한다.

“요즘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또한 뛰어난 기능이나 기술만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 만큼 언어예절, 배려, 인사 등 올바른 인성을 갖춘 능력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연정보고가 인성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3년째 대연정보고에 근무하고 있는 문 교장은 “대연 정보고는 최첨단 실습기자재와 전문성을 갖춘 젊고 패기 있는 교사를 영입하여 수



업이 활기차고 학생과의 호흡이 적절 잘 맞는다”며 “위지, 교육환경이 양호하고 자존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의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본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며 대연정보고를 취업 명문사학으로 키워나갈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두래 기자

## 국제청소년비전스쿨 부산예술대에 ‘새둥지’

### 중도입국청소년 한국어교육, 각종 체험행사 사회적응 도와

중도입국청소년 전문 교육기관 국제청소년 비전스쿨(교장 오세련)이 최근 대연동 부산예술대학에 새둥지를 틀었다.

지난 2011년 문을 연 비전스쿨에는 현재 중도입국 자녀 24명이 수업을 받고 있다. 중도입국 자녀란 어린시절을 외국에서 보내고 뒤늦게 한국으로 들어온 청소년을 일컫는데 보통 재혼한 어머니(외국인)가 데려오는 경우가 많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문화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전스쿨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진학지도는 물론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정서교육과 각종 체험활동을 통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의도와 적성을 살펴 일반 중·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세우고 있다.

교육과정은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체육교육, 체험활동, 정서교육



중도입국청소년교육기관 국제청소년비전스쿨이 최근 부산예술대로 이전했다.

및 특별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어교육과정은 4개월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육수업은 탁구, 볼링, 수영 등 계절 또는 학기별로 유동적으로 개설, 운영한다. 자녀들의 진로 지도를 위해 부모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오세련 교장은 “또 하나의 이웃인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교육과 진로를 돕기 위해 개교한 비전스쿨은 항상 문을 열고 한국문화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입학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070-8279-0854

## 동명불교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매주 목요일 개설, 기초예절 등 3개월 과정

동명불원(주지 화랑스님)은 지난 달 동명불교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주로 불교기초예절과 부처님 일대기 등을 배울 수 있는 아카데미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교육관에서 열린다.

주요 강사진으로는 동국대 교수 출신의 화랑·지관스님 등이며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 발행한 교재

로 3개월간 공부한다. 이와 함께 템플스테이 체험 시간도 갖는다. 수료생들에게는 신도증을 발급해 주고 수계식 후 법명을 받는다.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동명불원은 창건 40년간 14기 동명불교아카데미 졸업생을 배출하며 불교교육의 전당으로 명성을 쌓고 있다.

한편 동명불원은 최근 50평 규모의 최신식 시설을 갖춘 교육관을 신



최근 준공된 동명불원 교육관.

축하고 신도들을 위한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명불원 종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626-4337

## 담장 너머 소통하는 분포음악회

### 분포중 주민 초청 공연… 청소년 문화 맘껏 발산

분포중학교(교장 문정순)는 지난 15일 용호1동 LG메트로시티아파트 내 야외공연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장 너머 소통하는 분포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이 평소 좋아한 활동을 통해 익힌 솜씨를 맘껏 발휘하는 마당으로 오케스트라, 타악기, 플룻앙상블, 합창 등을 선보였다. 뿐만 아니라 교복패션쇼, 댄스·밴드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이번 음악회를 위해 몇 달 동안 틈을 이루 연습을 하는 등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음을 함께 했다.

학교 측은 음악회를 통해 학생 서로간의 협동심을 기르고 지역주민들

에게 청소년 문화를 공유하며 새로운 이해와 소통의 장을 열게 되는



분포중학교 학생들이 분포음악회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연주실력을 뽐내고 있다.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이용하세요

용자 대상자	<p>■ <b>재원</b> :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p> <p>○ <b>주민소득지원자금</b></p> <p>—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p> <p>— 고소득·고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p> <p>— 1지역 1명쯤으로 지정된 품목 생산가구</p> <p>○ <b>생활안정자금</b></p> <p>(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으며 다음 용도로 자금사용을 원할 시)</p> <p>—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p> <p>— 천재지변, 기타 재난으로 인한 생계 자금</p> <p>—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p> <p>— 고교 이상의 재학생 직계비속 학자금</p> <p>—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p>
	<p>○ <b>농협중앙회</b> (대연동지점)</p>
용자 기관	<p>○ <b>금액</b> : 주민소득지원금(2천만원 이하) 생활안정기금(2천만원 이하)</p>
용자 조건	<p>○ <b>이율</b> : 연리 2%</p> <p>○ <b>기간</b> : 2년거치 2년상환(매6월 마다 상환) (타시,군,구 전출 시 전액 즉시 상환)</p>
보증인 조건	<p>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 담보대출 충족자(부산시내 거주자) 또는 부산시내 거주,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자 1인</p>
용자 절차	<p>○ 신청서 등에 제출 → 동장이 구에 추천 → 구청장이 대출대상자 직접여부 검토후 해당 금융기관 및 동장에게 통보 → 신청인에게 통보 → 구비서류 준비 금융기관에 제출</p>
용자 신청	<p>○ 거주지 동주민센터</p> <p>○ 기타문의사항 : 구청 주민지원과(607-4851~3) 또는 동주민센터</p>

## 문화예술교육Days & 토요문화학교

### 부산문화재단, 내달 6일부터 다큐멘터리 극장 등 열어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센터장 하경희)는 ‘감만창의 문화촌’ 개관을 축하하는 첫 행사로 ‘문화예술교육 Days’와 ‘2013 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결과발표회 ‘여기가 @꿈지(地)’를 감만창의문화촌(옛 동천초등학교)에서 연다.

주요 행사로는 워크숍과 우수 문화예술교육 다큐멘터리 극장, 문화예술교육 라운지, 문화예술교육 체험교실 등이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며 같은 달 9일과 10일 이틀간 품

다락 토요문화학교 부스 행사와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린다. 품다락 토요문화학교 아동, 청소년, 가족들이 인문학·영상·역사·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경험하면서 관련분야의 소질을 개발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행사에 관심 있는 주민은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bsarte.or.kr)를 참조하면 된다.

## 부산디자인고 제40회 예일전

### 11.21~23일까지 목가구 그래픽작품 등 전시

부산디자인고(교장 정일빈)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교내에서 제40회 예일전을 연다.

예일전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기술을 활용해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주된 행사로 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에서도 다채로운 작품이 선보일 전망이다.

교내 실습실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물레성형 작품과 목가구 및 목석활동품, 옷걸이 생활소품, 애니메이션 작품 등 모두 150여점이 출품됐다.

작품은 일반인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체험행사도 열린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물레성형과 토크먼트 만들기, 나무로 생활소품 만들기, 핸드메이드 소품 만들기, 3D캐릭터 제작 시연을 통해 이번 행사의 또 다른 묘미를 만끽할 수 있다. 정일빈 교장은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디자인고 예일전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각종 작품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620-2700